

부산교육청-강원교육청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21.10.26 18:30 수정 : 2021.10.26 18:30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왼쪽)이 26일 강원 고성군에 있는 강원도교육청 남북교류사무소에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과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6일 강원 고성군에 있는 강원도교육청 남북교류사무소에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부산시교육청-강원도교육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동해북부선 최북단 역인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학습장을 개장한 것을 계기로 체결하게 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생 교류 △평화·통일 교육 인프라 공유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 협력 체계 구축 등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두 기관은 이 협약을 바탕으로 '2022년 부산-강원 평화·통일 학생교류 프로그램:(가칭)유라시아 철도 평화탐방단 프로젝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내년 6월 부산지역 중학생 40명이 2박3일간 강원도를 방문해 평화

열차 체험장과 비무장지대(DMZ), 통일전망대, 최북단 명파분교를 탐방하고, 강원도 지역 중학생 40명이 부산을 찾아 임시수도 기념관과 감천문화마을, 유엔평화공원 등을 체험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한반도평화 염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양 지역의 평화·통일체험 인프라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강원도교육청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평화·통일 감수성을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취소